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016, Vol. 22, No. 1, 1~18.

이익충돌 상황에서 공개가 자문행동에 주는 효과: 자문가역할수행집단과 사익추구집단의 비교*

김 수 빈 김 지 혜 정 경 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익충돌은 경영, 의학, 연구 등 자문이 필요한 상황에서 윤리문제를 일으키는 주요인 중 하나로 파악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공개를 해결책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공개의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보고는 일관적이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이익추구 성향에 따라 공개가 자문 행동에 주는 효과가 달라지는지를 실험적으로 연구하였다. 참가자는 20대에서 40대의 성인남녀 190명(남: 65명, 여: 125명)으로, 온라인으로 실험과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 실험에서 참가자는 자문가가 되어 가상의 파트너에게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때 참가자는 자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 적은 보상을 받으나 사익을 추구하면 많은 보상을 받게 되는 이익충돌 상황에 노출되었다. 총 2개의 과제 중 첫 번째 과제를 통해 자문가 역할을 최대화하는 집단과 사익추구를 최대화하는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두 번째 과제에서는 이 두 집단에게 각각 이익충돌 상황에 대해 공개 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하게 한 뒤 공개여부가 후속적인 자문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자문가역할수행집단과 사익추구집단 간 공개여부의 선택비율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두 집단 간 공개여부에 따라 자문행동에는 차이를 보였는데, 자문가역할수행집단에서는 자발적으로 공개를 선택한 집단이 비공개를 선택한 집단에 비해 파트너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반면, 사익을 추구한 집단에서는 공개 여부가 자문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와 더불어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이익충돌, 공개, 자문행동, 성인의 도덕성, 도덕적 행동

---

* 본 연구는 제 1저자의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수정・정리한 것임.
이 논문은 BK21사업(인지 및 심리과학 전문인력 양성 및 실용화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 정경미,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120-74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Tel : 02-2123-2448, E-mail : kmchung@yonsei.ac.kr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논문 표절·탈세와 같은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들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도덕성 상실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켜 왔다. 특히 2014년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사고의 원인부터 수습과정까지 각 단계별로 책임을 안고 있는 주체들의 직업윤리·책임의식·투명성 등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도덕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실시된 우리 사회 도덕성 수준에 대한 조사는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2015년 1월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9.1%(복수 응답)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부정부패'를 꼽아, 빈부격차 심화, 실업·고용 불안정보다도 도덕성 문제를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한겨레, 2015.01.01.), 공직사회와 정치권 등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OECD 국가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국제투명성기구, 2014.12.03.).

도덕성은 일반적으로 법·규칙·의무 등의 규범이나 원리를 이해하고 각 개인이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데 적용하는 판단능력인 '정의지향적 도덕성'(Kohlberg, 1981; Piaget, 1932)과 인간관계, 책임과 의무, 타인에 대한 배려·관심·동정심 등의 측면을 강조하는 '배려지향적 도덕성'으로 대표된다(Gilligan, 1982). 도덕성 문헌은 정의지향적 도덕성이 주를 이루나(문용린, 문미희, 1993; 이경원, 1996), 최근 친사회적·배려지향적 도덕성을 함께 탐색하는 통합적 접근이 증가하고 있다(윤성연, 정경미, 2014; 정창우, 2004; Eisenberg, Hofer, Sulik, & Liew, 2014).

최근 연구들은 도덕적 행동을 저해하거나 촉진하는 상황적 요인들에 주목하고 있는데(Dana, Weber, & Kuang, 2007; Shu, Mazar, Gino, Bazerman, & Ariely, 2011). 그 대표적인 예가 '이익충돌'이다. '이익충돌(Conflict of Interest)'이란 개인의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이 충돌하여 그가 공식적인 책임을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정의된다(OECD, 2003). 일상에서 관찰되는 대표적인 이익충돌 상황에는, 의사가 제약회사로부터 혜택을 받고 그 회사의 검증되지 않은 약품을 환자에게 소개하거나(Thompson, 1993; Wazana, 2000), 연구자들이 회사로부터 자금을 후원받을 때 연구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DeAngelis, 2000), 회계사가 자신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회사에 대해 공정한 회계 감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다(Ariely, 2012; Bazerman, Loewenstein, & Moore, 2002). 특히 지난 2001년 'Enron 사태'는 동일 주체가 한 회사에 대한 감사와 컨설팅을 동시에 진행한 이익충돌의 대표적인 예로(Cunningham & Harris, 2006; Li, 2010), 이를 계기로 이익충돌과 그 기제를 밝히는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Cain, Lowenstein, & Moore, 2005, 2011; Church & Kuang, 2009; Moore, Tetlock, Tanlu, & Bazerman, 2012). 연구결과는 일관적으로 이익충돌이 실제적으로 부패를 야기하거나 잠재적으로 비도덕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Mazar & Ariely, 2006; Harvey, Kirk, Denfield, & Montague, 2010), 이익충돌 상황에서의 도덕 행동 저하에 대한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증명해 주었다.

이익충돌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공개(disclosure)'이다. 공개란 이익충돌에 직면한 당사자가 자신의 상황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으로(Ariely, 2012), 이익

충돌을 공개한 자문가는 보다 정직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Dalley, 2007; Koch & Schmidt, 2009). 공개는 정치권, 경제 영역 뿐 아니라 보건,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익충돌이 야기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당사자의 도덕적 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Sah, Cain, & Loewenstein, 2013; Weinfurt, Friedman, Dinan, Allsbrook, Hall, Dhillon, & Sugarman, 2006).

그러나 공개의 도덕적 행동 촉진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는 비일관적이다. 먼저, 공개 및 투명성과 관련된 미국과 국제 정책을 분석한 자료(Fung, Graham, & Weil, 2007)와 미국 담배 산업 문건을 기술통계로 분석한 연구 결과(Bero, Glantz, & Hong, 2005)는 가정과는 달리 공개가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을 일으켜 당초 기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한다.

일련의 실험 연구 결과 역시 공개의 효과가 비일관적임을 보여준다. Cain, Loewenstein과 Moore(2005)는 147명의 대학생을 자문가와 추정자로 배정하고, 동전의 실제 액수 범위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자문가가, 추정자에게 동전 개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과제를 실시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자문가가 추정자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정보를 주는지 세 조건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첫 번째 조건에서는 추정자가 정답에 가깝게 응답할수록 자문가가 많은 보상을 받도록, 두 번째 조건에서는 추정자가 정답에서 벗어날수록 자문가가 많은 보상을 받도록(미공개조건), 마지막 조건은 보상 조건을 두 번째 집단과 동일하게 하되 그 사실을 자문가가 추정자에게 알리도록 하였다(공개조건). 그 결과 첫째 집단보다는 둘째 집단, 둘째 집단보다는 셋째 집단의 자문가가 더욱 실제에서 빗나간 금액을 추정자에게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 공개가 도덕적 행동을 증가시키지 못함을 보여주었다. 같은 연구자들은 추가 연구를 통해, 공개가 이익충돌 당사자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정당화되었다는(morally-licensed) 인식을 갖게 하여 직업윤리를 준수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킨다고 밝혔다(Cain et al., 2011). 이익충돌이 도덕적 딜레마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더라도, 강제로 그 사실을 고지했다는 사실에서 이미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했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연구자들은 공개의 효과가 자문가의 도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문을 받는 상대방 역시 잘못된 추정을 하는 원인일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자문 받는 상대가 이익충돌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자문가가 자신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부정확한 정보를 줄 것이라 추측하여 자문가가 알려주는 액수보다 더 낮은 추정치를 제시하는 전략적 과장(strategic exaggeration)이 발생하기 때문이다(Loewenstein, Cain, & Sah, 2011).

반면, 공개의 효과가 조건에 따라 긍정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도 있다. 예를 들어, Koch와 Schmidt(2009)는 대학생 148명을 대상으로 독일에서 Cain 등(2005)의 실험과 유사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Cain 등의 실험에서는 자문가와 추정자가 완전히 낯선 상황에서 단 한 번의 상호작용을 하는 데서 끝나는 반면, Koch와 Schmidt(2009)의 실험 조건은 자문가와 추정자로 짝지어진 참가자들이 같은 내용을 2회 반복하는 설정이었다. 그 결과, 1회 시행에서는 기존의 결과와 동일하게 이익충돌 사실을 공개한 자문가가 추정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2회째에는 공개 조건의 자문가들이 비공개 조건의 자문가들에 비해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뿐

아니라, 추정자에게 제공한 정보가 실제 값에서 벗어난 정도도 매우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즉, 이익충돌이 야기하는 정보 제공의 편향(bias)이 현저히 줄어든 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한번 경험된 주제를 다루는 경우 이익충돌 공개의 부작용은 해소되고 긍정적인 효과가 촉발됨을 보여주었다(Koch & Schmidt, 2009).

위와 같이 상반된 연구 결과들은, 이익충돌 상황에서 공개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조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현재까지 공개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직접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나, 도덕성에 대한 연구들은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도덕성의 개인차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도덕성이 성차(Rest, 1979; Walker, 1984), 연령(Rest, Davison, & Robbins, 1978), 사회적 지위 (박정은, 박혜경, 2013)등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개인 기질(Farrington, 2001), 가정 환경(Juby & Farrington, 2001; Morash & Rucker, 1989), 부모의 양육 태도(Hoffman & Saltzstein, 1967; Palmer & Hollin, 1997), 문화(신홍임, 2015; 이정훈, 2008; Shweder, Mahapatra, & Miller, 1987) 에 영향을 받음을 보고한다. 특히, 이익충돌 상황에서 공개의 효과를 연구한 한 연구(Sah & Loewenstein, 2014)에서는 개인의 특성 중 사익추구경향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개인이 얼마나 자신의 이익추구를 원하는가에 대한 지표인 사익추구성향은 이익충돌상황에서 행동의 결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대한 실험적인 연구는 현실적인 필요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개여부를 강제로 결정한 뒤 이익충돌상황의 자발적 선택 여부가 도덕행동에 주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자들은 참가자를 공개와 비공개 집단에 무선할당한 후, 각 집단에서 참가자에게 이익충돌조건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그 결과, 공개집단에 비해 비공개 집단이 이익충돌을 받아들인 빈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익충돌을 선택한 집단은 공개 조건에 상관없이 파트너에게 편향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강제공개가 비공개보다는 사람들을 보다 도덕적으로 행동하게 하지만, 개인에게 자신의 이익을 최대로 하는 옵션을 주게 되면(이익충돌조건) 공개여부는 더 이상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시사한다. 즉, 사익 추구와 같은 개인적인 특성이 공개의 효과를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의 연구에서는 도덕적 행동에 있어 공개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보여주기는 하지만, 공개의 효과를 조사하는데 제한이 있다. 첫째, 이익충돌조건에 대한 선택을 공개에 대한 선택 이후에 하도록 했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이 이익충돌상황에서 공개에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한 설명에 제한적이다. 둘째, 공개 여부를 실험 초반에 강제로 할당했기 때문에, 앞서 연구들(Cain et al., 2011; Loewenstein, Cain, & Sah, 2011)이 지적한 도덕적 정당화(moral licensing)나 전략적 과장(strategic exaggeration)과 같은 인지적인 과정이 개입하여 공개가 도덕적 행동에 주는 영향에 대해 직접적으로 조사하는데 제한을 준다. 이에 근거해 개인의 사익추구경향성과 자발적 공개를 동시에 고려하는 연구 설계를 통해 공개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국내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KISS, KERIS, DBPia등 국내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이익충돌 공개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

시하였다. 그 결과, 국내 의학저널의 이익충돌 명시 규정과 대한의학회지에 발표된 임상연구 논문들의 이익충돌 명시 수준이 외국에 비하여 미흡함을 밝힌 1개의 문헌고찰 연구만을 찾을 수 있었다(Kang, Moon, Chang, Koo, & Koh, 2013). 공개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사익추구 성향을 먼저 파악한 후, 이 성향이 이익충돌상황에서 공개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했을 때 자문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1개 민간단체 회원 40명과 일반인 15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단체는 만 15-39세의 청년으로 구성된 350여 명 규모의 금융 및 생활 협동조합으로, 회원 중 40명을 모집한 뒤, 이후에는 온라인 홍보를 통해 이미 참가한 사람에게 다른 일반인 참가자를 소개받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참가자에게는 '특정 상황에서의 의사결정행동 연구'로 공지하였으며, 다른 참가자를 소개받아야 했으므로 자료수집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실제 연구주제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과 오염을 방지하였다.

단체 회원의 경우, 청년 단체라는 성격에 따라 만 39세 미만이라는 연령 제한이 있었지만 일반인에 대한 모집에서는 제한이 없었다. 성별, 연령, 학력, 월 소득수준 등 설문을 통해 살펴본 인구통계학적 변인에는 단체 회원과 일반인 사이에 차이가 없어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함께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두 번째 과제에 대한 응답치를 0이나 100 등 극단으로 제시하여 실험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것으로 판단되는 5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190명(남: 65명, 여: 125명)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본 연구는 책임 연구자가 속한 대학의 생명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1040917-201506-SB-165-01)을 받았다.

실험

본 연구에서는 이익충돌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을 다룬 선행연구(Cain et al, 2005; Sah et al, 2013)를 참고하여 구성한 컴퓨터 과제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과제는 Ruby를 기반으로 하는 웹 프레임워크 Rails로 제작되었다.

개별 참가자들은 IBM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Windows PC에서 프로그램이 탑재된 웹 사이트에 접속 후 실험을 실시하였다. 응답은 마우스 또는 키보드를 사용하였고 그 결과는 웹 사이트 서버에 자동으로 기록되었다.

본 실험 과제에서는 이익충돌 상황에서 자문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2개의 과제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 과제에서는 자문가로서의 역할 수행과 개인의 사이익 간 선호를 물었다. 두 번째 과제에서는 자문가가 처한 이익충돌 상황에 대해 공개를 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한 후 또 다른 과제를 통해 자문을 하게 하였다.

연구절차

실험 안내

참가자는 연구자로부터 실험 프로그램이 탑재된 웹 사이트 링크와 함께, 다른 사람과 짝을 이루어 게임을 하게 될 것을 안내받았다. 실제로 게임을 수행하는 사람은 참가자뿐이지만, 다른 사람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이 본 실험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마치 다른 공간에서 게임을 수행하는 파트너가 있는 것처럼 설정하였다. '파트너'는 본 게임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이고, '자문가'는 그 파트너가 게임을 잘 수행하여 궁극적으로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안내하였다(그림 1). 실험을 시작하기 전 참가자에게 보이는 화면에서는 '2인 1조 주사위 게임 & 동전 게임'이라는 제목이 표시되었다.

역할 배정

참가자로 하여금 다른 참가자에 비해 능력이 뛰어나므로 '자문가'가 되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본 실험 전 총 6개의 퀴즈를 제시하였다. 퀴즈를 풀기 전 화면 지시문을 통해 참가자에게는, 퀴즈가 한 쌍의 참가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며 두 명 중 퀴즈 수행결과가 더 우수한 참가자가 '자문가' 역할을 맡게 된다고 안내하였다. 퀴즈는 이익충돌 상황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시각자극의 수를 맞추는 문제 3개와 사고력 문제 3개로 구성되었다. 참가자가 여섯 번째 퀴즈에 응답한 직후, 화면에는 "당신의 역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라는 내용의 안내문이 5초간 제시되었고, 다음 화면에서 "당신은 파트너보다 더 많은 문제를 맞추었기 때문에, 자문가가 되었습니다."라는 안내문이 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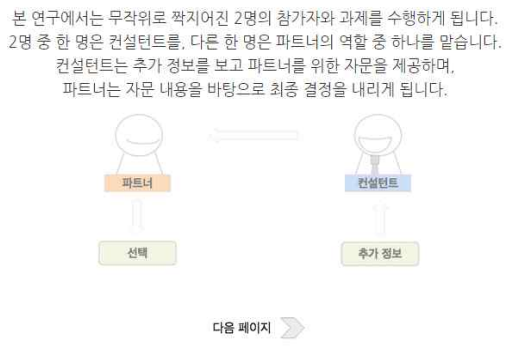

그림 1. 게임 시작 전 역할 안내 화면

역할 안내

'자문가'로 배정된 후, 참가자는 기본 자문비 1,000원을 제공받았으며, 이는 실험 프로그램 화면 우측 하단에 '현재 보유금액'으로 표시되었다. 참가자에게는 자문가로서 주어진 과제에 대해 파트너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과제에서 제시되는 조건에 따라 자문비를 받게 됨을 안내하였다. 이 때, 파트너가 실존하는 것처럼 실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익충돌 상황을 보다 명확히 구현하기 위하여, 참가자와 짝지어진 파트너가 자문가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만 추가 자문비가 지급된다는 내용을 함께 안내하였다.

과제 1: 주사위 선택

첫 번째 과제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금액 범위에 대한 정보를 보고, 파트너에게 어떤 주사위를 던지도록 조언할 것인지 선택하는 과제이다. 파트너에게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금액을, 자문가에게는 10,000원에서 파트너에게 주어질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제공하는 것으로 안내하였다. 예를 들어, 자문가가 주사위 A를 선택하는 경우 파트너는 6,000원대의 금액을, 자문가는 3,000원대의 자

그림 2. 과제 1: 주사위 선택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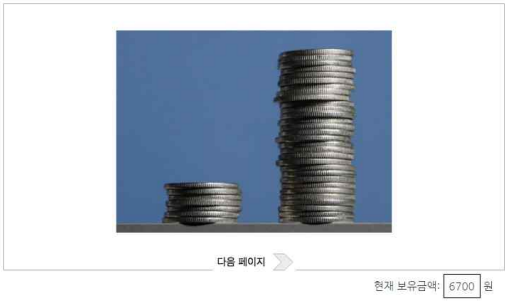

그림 3. 과제 2: 동전 개수 세기 화면

문비를 받게 되며, 자문가가 주사위 B를 선택하면 반대로 파트너가 3,000원대, 자문가가 6,000원대의 금액을 받게 된다. 즉, 파트너에게 더 많은 금액이 제공될수록 자문가는 더 적은 금액의 자문비를 받게 되었다. 자문가는 파트너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추가로 알고 있으며, 파트너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기본 자문비 1,000원을 지급받았고 파트너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역할임이 사전에 안내되었으므로, 주사위를 선택하는 것은 자문가로서의 임무와 개인의 재정적 이익이 상충하는 이익충돌 상황이었다. 따라서 주사위 선택 과제에서 자문가가 주사위 A를 선택한다면 자문가 임무에 충실한 자문가로서의 의사결정을, 주사위 B를 선택한다면 개인의 재정적 이익을 따르는 의사결정을 내린 것으로 간주하였다. 주사위 선택 이후 화면에서는, 참가자의 응답 값을 바탕으로 계산된 자문비가 제시되었으며 해당 자문비는 화면 우측 하단의 현재 보유금액 란에 합산되었다.

과제 2: 동전 개수 세기

두 번째 과제는 동전이 쌓여있는 사진을 15초 동안 보고, 파트너에게 동전이 총 몇 개인지 직접 숫자를 입력하여 알려주도록 하는 과제이다. 이 때, 자문비는 실제 동전 개수와 파트너가 추정한 동전 개수의 차이에 500원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됨을 안내하였다. 따라서 파트너에게 동전 개수를 부정확하게 안내할수록, 자문가가 받을 수 있는 자문비가 더 많아지도록 하였다.

두 번째 과제에서 자문비 계산 공식에 대해 안내한 후, 동전 사진이 제시되기 전에 참가자로 하여금 "파트너에게 '실제 동전개수와 파트너의 추정개수가 차이가 많이 날수록 자문가가 돈을 더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하게 함으로써, 이익충돌 상황에 대하여 자발적 공개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하였다.

자발적 공개 여부 문항에 응답한 이후, 다음 화면에서 15초간 동전 사진을 제시하였으며 화면 우측 중간에 있는 빈 칸에 직접 키보드로 숫자를 입력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음 화면에서는 응답 값을 통해 계산된 자문비가 표시되었으며, 첫 번째 과제의 경우와 동일하게 해당 자문비는 화면 우측 하단의 현재 보유금액 란에 합산되었다.

실험안내	1. **참가자는 다른 사람과 2인 1조가 되어 게임을 수행할 것을 안내받음** : 한 사람은 직접 게임을 수행하며, 다른 사람은 파트너에게 정보를 제공함
↓	
역할배정	2. **참가자는 본 게임에 앞서 6개의 퀴즈를 풀고, 성적이 다른 사람보다 우수할 경우 자문가 역할을 배정받는 것으로 안내받음** : 참가자는 모두 '자문가'로 배정받음
↓	
역할안내	3. **자문가는 주어진 과제에 대해 파트너에게 정보를 제공함** : 자문가는 파트너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문제에서 제시되는 조건에 따라 자문비를 받게 되며, 파트너는 조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만약 거부할 경우 자문가는 자문비를 받지 못함을 안내받음
↓	
과제 1	4. **참가자는 파트너에게 둘 중 하나의 주사위를 선택하도록 조언해야 함** : 주사위A = 파트너 이익>자문가 이익 : 주사위B = 자문가 이익>파트너 이익
↓	
과제 2	5. **참가자는 과제 2 수행 전에 파트너에게 이익충돌 상황을 공개할지 결정해야 함** : 참가자는, 자신이 파트너에게 불리한 조언을 할수록 많은 자문비를 받는다는 것을 파트너에게 공개할 지 결정함
↓	
과제 2	6. **참가자는 파트너보다 오랜 시간동안 정보를 보고, 동전의 개수를 조언해야 함** : 파트너의 추정치가 실제에서 멀어질수록 자문가는 많은 자문비를 받음
↓	
설문조사	7. **인적사항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답함**

그림 4. COI 연구 절차와 과정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0.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과제1의 주사위 선택 과제의 결과를 빈도분석하였다. 이 결과에 따라 전체 참가자를 자문가역할수행 집단과 사익추구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이들의 집단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보기 위하여 교차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집단에서 자발적 공개 여부가 도덕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 뒤 실시한 과제 2의 동전 세기의 결과 값에 대하여 자발적 공개집단과 비공개 집단을 대상으로 각각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결 과

과제 1. 주사위 선택과제의 결과

과제 1의 주사위 선택 과제 빈도분석 결과, 자문가로써 파트너의 이익을 최대로 하는 주사위를 선택한 집단(자문가역할수행집단)이 55.3%(N=105),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최대로 주사위를 선택한 집단(사익추구집단)이 44.7%(N=85)로 사익을 추구한 사람보다 10%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 2. 공개 여부에 따른 자문행동 결과

다음으로는 이익충돌 상황에서 자발적 공개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자문가역할수행집단과 사익추구집단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게 하였다. 먼저, 자문가역할수행집단과 사익추구집단사이에 자발적 공개를 선택한 사람들의 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한 결과, 집단간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x^2=.110, *n.s.*)(표 1). 다음으로, 두 집단에서 공개여부에 따라 동전 세기 과제에 대한 자문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문가역할수행집단에서는 공개 집단이 비공개 집단보다 동전을 속인 개수가 유의미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t=-1.975, df=103, p<.05; cohen's d: 0.39)(표 2). 이는 공개 집단이 비공개 집단보다 정직한 정보를 제공했음을 보여준다. 반면 사익추구 집단에서는 공개의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1.115, df=83, *n.s.*)

표 1. 각 집단의 공개 여부 선택 결과 비교

구분		사례 수	자문가역할수행집단	사익추구집단	x^2
공개집단	빈도 (%)	125 (65.8)	68 (64.8)	57 (67.1)	.110
비공개집단	빈도 (%)	65 (34.2)	37 (35.2)	28 (32.9)	
		190 (100)	105 (100)	85 (100)	

표 2. 각 집단의 공개 여부에 따른 동전 세기 과제 결과 비교

집단	M (SD)	자유도	
자문가역할수행집단 (N)			
공개집단 (68)	5.85 (6.15)	103	t=-1.975*
비공개집단 (37)	8.57 (7.70)		
사익추구집단 (N)			
공개집단 (57)	9.49 (7.87)	83	t=-1.115
비공개집단 (28)	11.28(10.05)		

* p<.05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사익추구 성향에 따라 공개가 이익충돌상황에서 자문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이익충돌 상황에 대한 실험 방법을 차용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2가지 과제로 구성된 온라인 실험을 실시하였다.

먼저 과제 1에서는 각 개인의 사익추구 성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참가자에게 자문가로서의 역할을 최대로 하거나, 사적인 이익 추구를 최대로 하는 조건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과제 1의 결과에 따라, 자문가역할수행집단(55.3%)과 사익추구집단(44.7%)으로 분리하였다. 과제 2에서는 자문비 지급 조건을 제시한 뒤 이익충돌 상황을 파트너에게 공개할지 결정하도록 한 후 동전 세기 과제를 통해 파트너에게 자문하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각 자문가역할수행집단과 사익추구집단의 경우 공개선택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두 집단 간 공개여부에 따라 자문행동에는 차이를 보였는데, 자문가역할수행집단의 경우, 자발적으로 공개를 선택한 집단이 비공개를 선택한 집단에 비해 파트너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반면 사익추구 집단의 경우에는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자발적 공개의 효과가 대상자의 특성, 사익추구경향성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가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익충돌 상황의 '공개'의 효과는 일관적이기보다는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공개가 후속자문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두 가지 조건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먼저, 이 조건으로 대상자가 가진 특성, 특히 사익추구경향을 살펴보았는데, 공개가 후속 자문행동에 주는 효과가 개인의 사익추구경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는 애초에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로 결정한 사람의 경우, 공개여부가 자신의 이익을 최대로 하는 편향된 자문을 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관찰되었다. 반면, 전문가역할수행집단에서는 이익충돌에 대해 공개를 하는 경우, 자문행동이 편향되지 않게, 즉,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자발적 공개의 영향이,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진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주며, 선행연구의 연구 결과 뿐 아니라(Sah & Loewenstein, 2014), 공개가 이익충돌 상황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일부 지지할 수 있다(Dye, 2001; Gunderson, 1997; Healy & Palepu, 2001; Verrecchia, 2001; Güth et al., 1996, Dalley, 2007; Hall & Berenson, 1998). 본 연구에서는 연구 가설 중 하나가 공개에 대한 선택을 주었을 때 이 결정권이 후속적인 자문 행동을 편파적이지 않고 사실에 근거하여 행하도록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공개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선행연구들(Cain et al., 2005, 2011; Loewenstein et al., 2011)이 강제 공개 조건을 주로 연구했고, 그 공개효과가 미약함을 보고하였다. 이를 본 연구결과와 함께 고려하면, 공개조건이 도덕성이 본래 높을 것이라 추정되는 전문가역할수행집단 중에서도 일부에게만 도덕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사익추구집단에 대해서는, 공개 조건에 따른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도덕성이 비교적 낮은 집단에 대해서는 공개 조건을 통해 도덕적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방법이

더욱 효율적이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공개의 효과는 사익추구성향이 높은 개인에게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 결과는 개인별 특성의 영향력이 비교적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므로, 공개 등 외부 조건의 변화를 통해 이익충돌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이들에게 그 의미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공개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다른 조건이 있다는 사실은 개인의 사익추구경향성 이외에 다른 특성에 대한 탐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 다른 발견은 공개의 자발성에 대한 것으로 전문가역할수행집단 중 일부는 자발적 공개를 통해 파트너에게 편파적이지 않은 행동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즉 공개라는 행위를 자발적으로 택함으로써, 마찬가지로 당사자는 스스로 사적 이익을 피하고 공적인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윤리적 동기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이익충돌 상황에서 무심결에(unconsciously) 자기 편향을 일으키는 심리적 기제를 '공개'라는 행위가 중재한 데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선행연구는 사람들이 실제보다 자신을 더욱 도덕적이라고 지각하며, 이러한 선택적 지각 및 편향으로 인해 부도덕한 행동을 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Mazar & Ariely, 2006; Mazar et al., 2008; Moore et al., 2012). 이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익충돌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익을 보장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런데 공개에 대한 선택을 요구받을 때 사람들은 다시 한 번 이익충돌 상황을 인지하게 되고 그것이 야기할 문제를 판단하는 의식적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공개' 선택 과정은 직관적 편향을 인지적 판단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공개를 선택한 집단의 경우, 자발적 선택 자체가 도덕적 행동을 위한 동기로 작용하였을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은 강제공개와 자발적 공개의 상대적 효과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 연구를 통하여 추가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공개가 왜 사익추구집단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그 기제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어렵다. 사익추구집단에서도 전문가역할수행집단과 비슷한 비율로 자발적 공개를 선택하였는데, 첫 번째 조건에서 자발적 공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여전히 편향된 자문을 제공하는 행동을 보였다. 편향된 자문의 경우는 앞선 연구에서도 지적한 도덕적 정당화(moral licensing)로 설명이 가능한데, 이익충돌상황을 상대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굳이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자문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후속 자문에서도 편향된 자문을 보인 이유에 대해서는 본 연구 결과만으로 추가적인 해석이 어렵다. 전문가역할수행집단은 공개라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지만, 수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없는 사익추구집단의 경우, 현재 이들이 보다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이들의 특성과 도덕행동을 결정하는 기제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탐색이 필수적이다.

둘째, 본 연구는 이익충돌에서 공개의 효과를 연구할 때 문화적 차이를 고려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역할수행집단이나 사익추구집단의 경우에도 공개를 선택한 사람의 수, 그리고 각 집단 내에서 공개와 비공개를 선택한 사람의 수가 비율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기존 서구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비록 같은 선택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사익을 우선하는 결정을 내리는 참가자가 그렇지 않은 참가자에 비해 2배 정도 많다고 보고한다(Sah & Loewenstein, 2014). 이런 차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한 가지로 문화차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문화권에 따른 도덕성 비교 연구들(김영훈, 2014; 최상진, 김기범, 2000)은 한국과 같이 동아시아 국가가 해당되는 '체면 문화권'에서는 타인에 의해 주어지는 사회적 가치인 '체면'이 깎일 확률이 낮다고 여겨질 때 사람들이 보다 빈번하게 비도덕으로 행동한다고 밝혔다. 이런 설명은 적어도 한국사회에서는 자신이 이익충돌에 직면해 있고 이에 영향 받을 수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공개하는 행위가 보다 바람직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행동을 직접 관찰하고자 하는 도덕성 연구의 최근 흐름을 반영하여 방법론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 이는 참가자의 자기보고식 설문이 갖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으며 도덕적 행동의 실제적인 측정에 유용한 방법일 것이라 판단된다. 한계점을 보완한다면 도덕성과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에서 활발히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익충돌 상황을 최대한 실제와 유사하게 담아내고자 노력했지만 온라인 실험이라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가상의 자문비가 아니라 실제 자문비를 두고 실험을 진행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참가자들이 실제에 기반하여 솔직히 응답할 수 있도록 측정도구를 보다 정교화하거나, 경우에 따라 온라인이 아닌 대면 실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개의 기제와 더불어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제1에서 나타난 전문가의 역할이나 사익을 추구하는 성향과, 과제2에서 공개를 선택하는 행위가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공개'의 선택이 갖는 의미, 즉, 이후의 자문에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 것인지, 파트너가 자문을 받아들이지 않아 자문비를 아예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한 것인지, 과제1의 결과에 귀속된 선택인지 확인할 수 없다. 추후 연구에서는 공개를 선택한 이유 혹은 공개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문가역할 수행 집단의 경우 공개 여부에 따라 도덕적 행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익추구 집단의 경우에는 공개가 효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추구 집단의 도덕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을 추후 실험적 처치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익충돌 상황이라는 기본 조건은 동일하게 하되, 다양한 점화(priming)를 통해 배경 설정을 다양화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도덕적 행동이 촉진되는지 살펴보기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본 연구에서는 과제를 제시할 때 '상대방이 자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문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설정이 사익추구 경향성을 통제하거나 자발적 공개를 택하도록 하여 도덕적 행동을 유발했을 가능성, 즉 애초에 갖고 있던 개인의 특성을 통제한 요소가 되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정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공개 여부를 강제로 배정하는 것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인적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익충돌 실험 전에 실시하는 경우, 이익충돌에 대한 정의 및 이것이 야기하는 폐해를 사전에 명시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동일 인

물에게서도 다른 결과가 관찰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설정의 반복적 실험을 통해, 이익충돌 상황을 완전히 제거하기 불가능한 현실에서 무엇이 문제를 완화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영훈 (2014). 체면, 존엄 문화를 통해 살펴본 동아시아 도덕성의 기반: 동아시아 사람들은 언제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까?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 논문집, 2014(1), 116.

문용린, 문미희 (1993). 한국 청소년의 도덕판단력 발달 연구개관-DIT 를 사용한 연구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1), 43-57.

박정은, 박혜경 (2013). 사회경제적 지위와 이타성 및 도덕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 논문집 2013(1), 331.

신홍임 (2015). 문화성향은 윤리적 의사결정의 과정에 영향을 주는가?.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1), 67-96.

윤성연, 정경미 (2014).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 양육수준과 자녀의 도덕성 간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4), 307-328.

이경원 (1996). 콜버그의 인지적 도덕성 발달에 관한 조사연구. 초등도덕교육, 1(0), 141-166.

이정훈 (2008). 유교문화권에서 부모의 양육행위가 자녀 도덕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7(3), 783-818.

정옥분, 곽경화 (2001). 성년기의 도덕성에 관한 연구: 보살핌 지향의 도덕성과 정의지향의 도덕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9(12), 225-238.

정옥분, 곽경화 (2003). 배려지향적 도덕성과 정의지향적 도덕성에 관한 연구: 성과 성역할 정체감 및 연령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아동학회지, 24(1), 1-20.

정창우 (2004). 세계화 시대의 도덕 교육에서 정의윤리와 배려윤리의 통합적 접근법 연구. 윤리연구, 56(0), 331-356.

최상진, 김기범 (2000). 체면의 심리적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185-202.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http://www.transparency.org

한겨레, 2015.1.1.,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조사결과 발표

Ariely, D. (2012). The Honest Truth About Dishonesty, Harper Collins. 이경식 역(2013).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 서울: 청림출판.

Bazerman, M. H., Loewenstein, G. & Moore, D. A. (2002). Why Good accounts do bad audits, *Harvard Business Review* 97-101.

Bero, L. A., Glantx S., Hong, M. K. (2005). The Limits of Competing Interest Disclosures. *Tobacco Control, 14*, 118-126.

Cain, D. M., Loewenstein, G. & Moore, D. A. (2005). The Dirt on Coming Clean: Perverse Effects of Disclosing Conflicts of Interest. *Journal of Legal Studies, 34*(1), 1-24.

Cain, D. M., Loewenstein, G. & Moore, D. A. (2011). When Sunlight Fails to Disinfect: Understanding the Perverse Effects of Disclosing Conflicts of Interest.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7.

Church, B. K. & Kuang, X. (2009). Conflicts of Interest, Disclosure & (Costly) Sanctions: Experimental Evidence. *Journal of Legal Studies, 38*(2): 505-532.

Cunningham, G. M. & Harris, J. E. (2006). Enron & Arthur &erson: The Case of the Crooked E & the Fallen A. *Global Perspectives on Accounting Education, 3,* 27-48.

Dalley, P. J. (2007). The Use & Misuse of Disclosure as a Regulatory System, *Florida State University Law Review, 34,* 1089-1131.

Dana, J. & Loewenstein, G. (2003). A Social Science Perspective on Gifts to Physicians from Industry.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90:* 252-255.

Dana, J., Weber, R. A. & Kuang, J. X. (2007). Exploiting moral wiggle room: experiments demonstrating an illusory preference for fairness. *Economic Theory, 33*(1): 67-80.

DeAngelis, C. D. (2000). Conflict of Interest & the Public Trust. 2000 America Medical Association.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84*(17), 2237-2238.

Dye, R. A. (2001). An Evaluation of 'Essays on Disclosure' & the Disclosure Literature in Accounting.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2,* 181-235.

Emanuel, E. J. & Thompson, D. F. (2008). The Concept of Conflicts of Interest, *The Oxford Textbook of Clinical Research Ethics, 758,* 764-765.

Farrington, D. P. (2001). Key Results from the First Forty Years of the Cambridge Study in Delinquent Development. In Thornberry, T. P. & Krohn, M. D. (Eds.) *Taking Stock of Delinquency: An Overview of Findings from Contemporary Longitudinal Studies.* New York: Kluwer/Plenum, in press.

Fung, A., Graham, M. & Weil, D. (2007). *Full disclosure: The Perils and Promise of Transparen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Gunderson, M. (1997). Eliminating Conflicts of Interest in Managed Care Organizations through Disclosure and Consent. *Journal of Law, Medicine, and Ethics, 27,* 5-15.

Güth, W., Steffen H. & Ockenfels, P. (1996). Two-Level Ultimatum Bargaining with Incomplete Information: An Experimental Study. *The Economic Journal., 106*(436), 593-604.

Hall, M. A. & Berenson, R. A. (1998). Ethical Practice in Managed Care: A Dose of Realism, *Annels of Internal Medicine, 128*(5), 395-402.

Harvey, A., Kirt, U., Denfield, G. H. & Montague, P. R. (2010). Monetary Favors and Their influence on Neural Responses and Revealed Preference, *The Journal of Neuroscience. 30*(28), 9597-9602.

Healy, P. M. & Palepu, K. G. (2001). Information Asymmetry, Corporate Disclosure, and the Capital Markets: A Review of the Empirical Disclosure Literatur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1,* 405-440.

Hoffman, M. L. & Saltzstein, H. D. (1967). Parent discipline and the child's moral develop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45-57.

Holstein, C. B. (1976). Irreversible, Stepwise Sequence in the Development of Moral Judgment: A Longitudinal Study of Males and Females, *Child Development, 47*(1): 51-61.

Juby, H. & Farrington, D. P. (2001). Disentangling the link between disrupted familes and delinquency,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1*, 22-40.

Kang, B. H., Moon, J. Y., Chang, Y., Koo, Y. M. & Koh, Y. (2013). Current Levels of Conflict of Interest Disclosure in Medical Publications from Korea.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28*(7), 978-982.

Koch, C., & Schmidt, C. (2009). Disclosing Conflict of Interest: Does Experience and Reputation Matter?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35*(1): 95-107.

Kohlberg, L. (1981). *Essays on moral development, Vol. 1: The philosophy of moral development.* San Francisco, CA: Harper & Row. 김민남 역 (1985). 도덕발달의 철학. 서울: 교육과학사.

Li, Y. (2010). The Case Analysis of the Scandal of Enron.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and Management, 5*(10), 37-41.

Li, X. & Yang, H. (2015). Mandatory Financial Reporting and Voluntary Disclosure: The Effect of Mandatory IFRS Adoption on Management Forecasts(April 8, 2015). Available at SSRN:http://ssrn.com/abstract=2172014.

Loewenstein, G., Cain, D. M. & Sah, S. (2011). The Limits of Transparency: Pitfalls and Potential of Disclosing Conflicts of Interest.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101*(3), 423-428.

Mazar, N. & Ariely, D. (2006). Dishonesty in Everyday Life and Its Policy Implications. *Journal of Public Policy and Marketing, 25*(1), 1-21.

Mazar, N., Amir, O. & Ariely, D. (2008). The Dishonesty of Honest People: A Theory of Self-concept Maintenance.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45*(6), 633-644.

Miller, P. B. & Weijer, H. (2009). Trust and Exploitation in Clinical Research, *The Limits of Consent: A Socio-ethical Approach to Human Subject Research in Medicine.* Corrigan, O., McMillan, J., Liddell, K., Richards, M. & Weijer, C. (Eds.), 25-37.

Miller, F. H. (1983). Secondary income from recommended treatment: should fiduciary principles constraints physician behavior? In: Gray B. H. ed. *The New Health Care for Profit: Doctors and Hospitals in a Competitive Environment.* Washington, D. C.: National Academy Press.

Monin, B. & Miller, D. T. (2001). Moral credentials and the expression of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1), 33-43.

Morash, M. & Rucker, L. (1989). An exploratory study of the connection of mother's age at childbearing to her children's delinquency in four data sets. *Crime and Delinquency, 35,* 45-93.

Moore, D. A., Tetlock. P. E, Tanlu, L. & Bazerman, M. H. (2012). Conflicts of Interest and the Case of Auditor Independence: Moral

Seduction and Strategic Issue Cycling, *HBS Working Paper #03-115.* Rev.12/04.

OECD (2003).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rvice. OECD.

Palmer, E. J. & Hollin, C. R. (1997). The influence of perceptions of own parenting on sociomoral reasoning, attributions for criminal behaviour, and self-reported delinquenc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3*(2): 193-197.

Piaget, J. (1932). *The Moral Judgment of the Child,* Londen: The Free Press.

Piff, P. K., Stancato, D. M., Cote, S., Mendoza-Denton, R. & Keltner, D. (2012). Higher social class predicts increased unethical behavior. *PNAS, 109*(11), 4086-4091.

Rest, J. R., Davison, M. L. & Robbins, S. (1978). Age Trends in Judging Moral Issues: A Review of Cross-Sectional, Longitudinal, and Sequential Studies of the Defining Issues Test. Child Development, 49(2): 263-279.

Rest, J. R. (1979). *Development in Judging Moral Issue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Rest, J. R. (1986). *Moral development: Advances in research and theory.* New York: Praeger; 문용린 외 공역(2008). 도덕발달 이론과 연구. 서울: 학지사.

Sah, S., Cain, D. M. & Loewenstein, G. (2013). The Burden of Disclosure: Increased Compliance With Distrusted Adv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4*(2). 289-304.

Sah, S. & Loewenstein, G. (2014). Nothing to Declare: Mandatory and voluntary disclosure leads advisors to avoid conflicts of interest. *Phychological Science, 25*(2), 575-584.

Shu, L., Mazar, N., Gino, F., Bazerman, M. H. & Ariely, D. (2011). When to Sign on the Dotted Line? Signing First Makes Ethics Salient and Decreases Dishonest Self-Reports, *Harvard Business school working paper.*

Shweder, R. A., Mahapatra, M. & Miller, J. G. (1987). Culture and Moral Development, In: Kajan, J. & Lamb, S. ed. *The Emergence of Morality in Young Childre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Thompson, D. F. (1993). Understanding Financial Conflicts of Interest.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29*(8), 573-576.

Verrecchia, R. E. (2001). Essays on Disclosur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2,* 97-180. *and Economics, 32,* 97-180.

Walker, L. J. (1984). Sex Differences in the Development of Moral Reasoning: A Critical Review. *Child Development, 55*(3): 677-691

Wazana, A. (2000). Physicians and the Pharmaceutical Industry: Is a Gift Ever Just a Gift?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83*(3), 373-380.

Weinfurt, K. P., Friedman, J. Y, Dinan, M. A, Allsbrook, J. S, Hall, M. A, Dhillon, J. K & Sugarman, J. (2006). Disclosing conflicts of interest in clinical research: views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s, conflict of interest committees, and investigators. *The Journal of Law, medicine & ethics, 34*(3), 581-591.

West, T., Ravenscroft, S. & Shrader, C. (2004). Cheating and moral judgment in the college classroom: A natural experiment. *Journal of*

Business Ethics, 54(2), 173-183.

논문 투고일 : 2015. 07. 30
1 차 심사일 : 2015. 08. 06
게재 확정일 : 2015. 12. 10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016, Vol. 22, No. 1, 1~18.

Factors affecting Disclosing conflicts of Interest on consultation: comparison with Role-oriented and Self-interest Groups

Su-Bin Kim[1)] Ji-Hye Kim[2)] Kyong-Mee Chung[2)]

[1)]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2)]Dep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A conflict of interest (COI) places people in ethical dilemma when providing consultation in a field of business, medical/pharmaceutical industry, research etc. Disclosure is a commonly adopted strategy for the adverse effect of COI, but previous studies have reported inconsistent results. This investigated whether individual differences in pursuing self-interest influence differently on consultation behavior during voluntary- or no-disclosure of COI conditions. A total of 190 adults participated in an on-line experiment which consisted of two tasks. On the 1st task,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either a role-oriented group or a self-interest group depending on their consultation choice on the task. On the 2nd task, participants were required to choose whether to disclose COI to his/her virtual partner and provided consultation to them. No group differences were found in frequency of choosing voluntary disclosure. For the role-oriented group, the voluntary disclosure group provided unbiased information to the virtual partners than the no disclosure group. However, no group difference between voluntary- and no-disclosure group in the self-interest group.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are further discussed.

Key words : Conflicts of interest, Disclosure, Consultation, Moral behavior, Adults' Morality